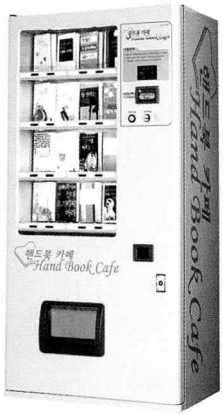

손쉽고 즐거운 독서, 이제는 자판기로!!
롯데기공, 핸드북 자판기 출시

'서점에 가지 않고 자판기를 통해 책을 구입하세요.' 롯데기공이 책을 콘텐츠로 하는 핸드북자판기를 출시하고 시장 확대에 나섰다. 롯데기공의 책자판기 출시는 이례적인 일이다. 커피, 캔 등 음료자판기 분야로만 사업을 진행해 온 롯데기공이 이색 아이템 분야로는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롯데기공은 책자판기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 판매할 수 있는 책자판기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 시장참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롯데기공이 야심에 차게 선보인 핸드북 자판기는 16종의 핸드북을 자판기에 적용해 판매할 수 있게 한 제품이다. 핸드북은 양복 안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휴대가 편리하고, 중요 내용만 요약편집이 된 게 특징. 책 가격이 2000~3000원으로 소비자 부담이 낮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시에 쉽게 구입해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었다.

이런 핸드북이라는 콘텐츠의 장점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유통수단이 바로 자판기이다. 롯데기공의 핸드북자판기는 다양한 장소의 설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다. 핸드북 컨텐츠가 320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이용가격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기공의 핸드북자판기는 콘텐츠의 장점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회전 디스플레이 기능을 채택했다. 이 기능은 자판기 전면에 전시된 도서의 표지와 내부를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이다.

도서는 총 160권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스파이럴 방식의 자유 낙하 투출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고장감지 기능을 갖춰 관리가 편리하게 했고, 제품의 외형은 W870X D570 X H1850mm이다.

롯데기공은 핸드북자판기의 출시와 더불어 본격적인 유통점 판매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소형서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 핸드북 자판기에 있어선 기회이다. 이동시 읽을 수 있는 핸드북의 장점을 살려 소형서점 공백의 틈새를 적절히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기공 마케팅실의 송원용 실장은 "서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책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핸드북자판기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라며, "사업적인 측면이외에도 건전한 독서 문화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자판기가 건전성과 사업성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롯데기공의 핸드북 자판기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